

과학풍토 조성은 출판산업이 발전해야

과학책도 재미있게 꾸며야

과학도서의 판매 부진, 독자 부재, 그 원인은 어쩌면 저술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과학지식이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풀어해주는 노력이 아쉽다.



劉光鍾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한국과학저술인협회 부회장〉

과학은 우리의 편리한 삶과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사고의 틀을 바꾸고, 가치의 규범까지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크게 작용한다. 우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 시대를 운택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학의 물결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 환경오염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 등도 과학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아 지리라 기대해 본다.

얼마 전 과학기술부는 2025년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 7위, 국민소득 3만8천달러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을 발표하였다. 국가의 총체적인 사업,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결할 문제가 무엇인가? 전 국민의 과학풍토 조성이다. 국민들의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가 목표만 세우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는 깃이 있어야 날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것처럼,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작년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태도를 측정하여 과학문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살펴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분야의 그것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도 출판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순수과학분야는 4백59종으로 전체 출판량(3만4천9백61종)의 1.3%, 발행부수는 60만3천25부가 발행되어 전체 발행량(1억1

천2백94만5천32부)의 0.5%로 나타났고, 기술과학도서는 4천1백86종으로 전체 출판량의 11.9%, 발행부수는 6백43만7천5백59부로 전체의 5.6%로 나타나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빈약한 출판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낮은 것과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빈약한 환경이 '과학선진'으로 가는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이해는 책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은 과학을 떠나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과학과 그 원리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대체로 탐구적인 의식이 체질화되지 않은 탓일 게다. 예외가 아니듯, 국민의 수 개념이 두어개, 또는 대여섯개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과학자도 있다. 과학 첨단화의 21세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습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현상은 과학의 이해 결여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면 과학의 이해 부족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오직 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서를 통해 지식기반을 성취해야 한다.

그러나 서점에서는 과학기술 도서가 팔리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먼지 낀 과학 책을 만날 수 있다. 과학도서가 이렇게 홀대받는 까닭은 독자가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도서가 읽히지 않는 이유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시절엔 과학분야에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왜 관심과 이해가 멀어지는 것일까?

과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과학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입시를 위한 과학공부였기에, 학교를 마친 사회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으니 과학기술 도서가 서점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과학도서의 판매 부진, 독자 부재, 그 원인은 어쩌면 과학 저술인들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고,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과학지식이 현대의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얼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보다도 과학적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생각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등등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노력이 부족한데서 연유되지 않았을까 한다.

교육부는 2001년 중학교 국어교과서(1-1)를 개정 배포하였다. 기존의 체재를 탈피한 새로운 책을 받은 어린 학생들은 교과서가 재미있게 꾸며져서 받은 즉시 모두 읽었다는 학생수가 95%를 차지했다는 조사가 있다.

교양 과학도서도 이처럼 재미있게 꾸밀 수는 없을까? 문제는 교과서가 재미있어 다 읽었다는데 있다.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책이라서 소담보듯 하던 교과서가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도록 만든 기획과 노력을 과학기술 도서에도 적용한다면 분명 독자들은 '과학책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과학은 재미없는 것,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도서

가 출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도서를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과학도서에 친근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저술인은 먼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써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하고,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권위가 서는 것처럼 저술했던 책들은 독자의 손과 눈을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과학도서의 문장과 구성이다. 문학이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과학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독자의 만족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을 써서 지루함을 없애야 한다. 또한 그림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사례를 생활 속의 얘기로 꾸러나갈 때 과학도서의 독서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장려로 과학대중화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대중화운동을 전개한 지 여러 해가 된다. 과학 대중화운동이 곧 국가 부흥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과학 대중화를 서둘러야 한다거나, 과학기술 대중화를 앞당기는 길 등을 제시하고 있음은 과학 대중화운동이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음이 아닐까. 무릇 과학기술 대중화는 과학풍토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달려있다 하겠다. 당면한 과제인 과학풍토 조성은 무엇보다 과학도서 독서장려 성취도에 따라 늦을 수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봄,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을 추진, 그 결성을 보았다. 농어촌 지역과 낙도

및 오지에 있는 예비 과학자들에게 1년에 1권 이상의 과학도서를 보내자는 취지이다. 책을 받는 어린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책을 보내는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국민들에게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운동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능하다면 농어촌 지역이나 낙도와 오지 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도서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지식 정보화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농어촌 오지에서는 과학 꿈나무가, 전선에서는 과학 청년들이 함께 과학문화의 습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취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언론도 과학도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간신문의 기사를 보면, 가뜩이나 어렵게 여겨지는 과학용어를 원론적으로 소개하고 풀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과학이란 재미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미가 없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신문사의 서평판도 과학기술도서에 관해서는 인색하다. 사회과학이나 문학·예술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서 인구 가운데 서평에 의존하는 독자가 절대적이고 보면 언론은 과학기술도서 대중화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풍토 조성의 기반구축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거듭나 국가 산업의 총체적인 목표달성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①7